

코로나19 예방접종 읍면 설명회

진안군민들 82% “소속감 있다”

무주군, 접종센터 설치·운영·이상반응 대응 등 공유·주민 궁금증 해소 나서

무주군은 지난달 2월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만 65세 미만)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달 26일까지는 6개 읍면 순회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안성면 이장회의 시 ‘무주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테마로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3일(10:00~)에는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5일에는 적상면(10:30~)과 부남면(14:00~)에서 진행된다.

26일에도 무주읍(10:30~), 설천면(14:00~) 주민들을 만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부터 ▲대응추진단 구성,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이상반응 대응 및 콜센터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안도와 함께 이상 반응들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연한 상태에서 접종을 진행하는 것보다 주민들과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공유하는 편이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읍·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먼저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들을 제보받아 미 접종 군민들에게 공유하는 등 상황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현재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진행을 위해 송금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한 상태로 행정지원반에서는 시행총괄과



무주군은 지난달 2월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만 65세 미만)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26일까지는 6개 읍면 순회 홍보를 실시한다.

대상자관리, 접종 실무면에서는 백신수급관리와 예방접종, 방문접종, 접종기관관리, 이상반응관리,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16일 오후에는 경찰서와 군부대, 119 안전센터,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 접종 시행에 따른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주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군민 2만1,403명으로, 무주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0일 까지 관내 5개 요양원 종사자 및 입소자 95명과 무주군청 및 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주119 안전센터, 코로나19 감염병 역학조사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200명의 접종을 안전하게 마친 상태다.

한편, 무주를 소재 예체문화관(다목적홀)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는 7월

부터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무주군은 11월까지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들에게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은 변호표 배부부터 체온측정, 손 소독, 접종력 확인, 문진, 예진, 접종, 전산등록,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접종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상황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이금희 팀장은 “어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각 읍면에서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는 곳까지의 이동거리도 있기 때문에 접종 전·후의 주민안전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전 군민이 안전하게 접종을 마치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 작년 사회조사 보고서 발표

진안군은 15일 군민의 삶의 질 수준과 사회변화 의식을 조사한 '2020 진안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조사 보고서는 진안군 810가구(응답자 1,307명)를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 참여, 시도 공통항목과 진안군 특성항목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조사한 결과다.

먼저, 가사분담 현황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부모님 부양에 대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6.2%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 증가에 대해 '긍정' 응답이 50.7%, '다문화 가구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은 '한글 교육 지원' 2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군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항목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민의 40.1%가 부채가 있고 주된 부채 이유는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공기업' 35.1%, '자영업' 24%로 집계되었고,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43%, '일자리가 자체가 부족해서'가 30.7%로 나타났다. 청년이 희망하는 취업지원사업으로는 '교육훈련'이 27.5%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군민의 65.7%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63.6%가 '국민연금'을 선택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군민이 뽑은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 확대'가 60.2%로 나타났으며,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1순위 '경제적 문제' 45.7%, 2순위 '건강문제' 34.6%로 나타났다. '이웃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긍정답변이 57.1% 등으로 동네이웃과의 친밀도 항목은 긍정의 답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민으로서의 소속감에 대해 '소속감 있다'는 응답이 82.8%로 나타났고,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 63.9%,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41.8%로 조사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2년 국도비 확보 대응상황 보고회

장수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가예산 부처 및 전북도 등 1차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부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활동을 해온 주요사업들의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대응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신품종 K-바이오 산업단지 조성(2,000억원), 백두대간을 넘어가야하는조성사업(500억원), 장수 농산물 스마트 유통 합타운 조성사업(500억원), 장수군 농촌철학 사업(428억원), 장안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200억원), 면단위LPG배관망 구축사업(126억원) 등 60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54억원,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4,305억원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가정·성폭력 등 각종 폭력 제로화 선언

군, 폭력예방교육·캠페인 전개

무주군이 가정폭력을 비롯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제로화를 선언하고 적극 실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무주경찰서와 함께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안전한 사회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이날 무주경찰서 신재훈 순경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전통문화의 집에서 통학택시 운전자 25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성폭력 및 성매매 추방,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가정폭력 근절 등의 슬로건을 내걸어 안전한 무주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하여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폭력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길 바란다”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소년 안전지킴이로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중석 무주경찰서 서장은 “무주군을 비롯해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폭력예방에 노력하겠다”며 “폭력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앞으로도 지속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배넛소 지원사업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높인다

무주군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배넛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딧별 한우 기반 조성을 통한 한우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한우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군비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총 100여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 사육규모 50두 미만의 농가 중 배넛소 입식이 가능한 농가가 대상이며 농가당 10두 이내다. 군은 증축계획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으로 밀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로 배넛소 대

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우 사육능력과의 육이 있는 농가, 배넛소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의 경우 우선 선정된다.

농가는 송아지를 지원받는 날로부터 30개월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후 6~7개월 령 암송아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주군에 상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호덕 종합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

장수군은 15일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부터 추진해온 '호덕마을 종합마을 만들기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호덕마을 종합마을 만들기사업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9년에 사업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억원을 투입, 한마을회관 건립과 초록길 정비 및 한마을터 조성, 작업터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한마을회관 준공과 동시에 작업터 정비를 통해 부족했던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호덕 종합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조성된 다양한 생활환경 기반이 도심과 농촌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 수액 주문·판매

고로쇠(수액) 철을 맞아 무주군은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 수액' 주문·판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품은 1.5l, 500ml 포장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으며 구입·문의는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회장 유지영 010-6490-4320, 무주반딧별사이버장터(tour.muju.go.kr/mail/080-055-0027))로 하면 된다.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무주구천동 덕유산고로쇠 수액은 맛도 좋지만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 니트륨, 인, 망간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조합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로쇠 정제기도 설치해 보다 맑고 깨끗한 수액을 맛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